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12, 출애굽 과 광야의 고고학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oudon 박사입니다. 세션 12, 출애굽과 광야의 고고학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근대학문이 탄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 조금 검토한 다음 출애굽에 대해 제시된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는 상이집트, 즉 남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누어진다.

이제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까지 두 가지 주요 사상 학파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제18왕조, 즉 제18왕조에 일어났다면 초기 연대는 이집트의 수도가 테베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 룩소르를 여기 남쪽 또는 상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제19왕조, 특히 람세스 2세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면 이집트의 수도는 삼각주와 가까운 이곳 멤피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는 두 개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기억했듯이 이집트인들은 스스로를 다시 나일강과 접한 검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 지역은 사막이었는데, 그곳을 붉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 제국의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때는 제18왕조가 전성기였을 때다.

물론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타르로 덮힌 바구니에 모세의 모티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어린 이집트 공주를 통해 방주와 구원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출애굽이 초기 출애굽이고 모세 3세가 파라오라면 이 파라오의 딸에게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름은 실제로 한동안 파라오로 통치했던 하트셉수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연대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특히 모세가 1526년경에 태어났다면 그녀가 바로의 딸이었을 수도 있고, 모세를 구출한 사람이었으며 궁극적으로 계모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가설이다. 그녀가 이집트에서 매우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인 아름다운 영안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추측이 흥미롭습니다 .

나는 지난 달에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그녀의 통치 이후 훼손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나요? 아마도 모세와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이론이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흥미로운 점은 첨단 기술, 최근 미래에 대한 첨단 기술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전환기에 훨씬 늦게 태어난 젊은 여성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얼굴 재건은 멜버른 대학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의 눈과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다시 시대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늦었고 아마도 그리스 혈통, 그녀 안에 있는 이물질의 혈통, 따라서 피부가 더 가벼워졌지만 아주 예쁜 젊은 여성이 다시 우리에게 매력을 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좋아, 내가 전에 언급했듯이 고고학이 답하려고 시도한 출애굽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경우와 시기입니다. 먼저, 출애굽이 일어났는가? 많은 비판적 학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소수의 노예 집단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규모 규모의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성경학자와 많은 이집트학자들은 놀랍게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출애굽에 대해 실제로 입증하거나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연기나는 총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기록에는 침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관리들은 그러한 굴욕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집트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 증거가 공백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인가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의 연대를 한두 번 지지하는데, 초기 연대는 제18왕조이다.

이집트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특히 투트모세 3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열왕기상에 근거하면 그 출애굽은 기원전 1445년경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른 날짜는 늦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파라오 람세스 2세 치하의 또 다른 강력한 이집트 왕조인 제19왕조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원전 1290년경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꽤 최근에 제안된 또 다른 더 나중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개의 주요 캠프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제가 공부할 것을 권장하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Hoffmeier, Millard 및 Gary Rendsburg가 편집한 작품입니다. Rendsburg는 다시 한 번 훨씬 나중의 주장을 펼쳤는데, 제 생각에는 그다지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학자들의 일련의 기사 또는 장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편집자 중 한 명이자 영국의 뛰어난 학자인 앨런 밀라드(Alan Millard)입니다. 제임스 호프마이어의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에서 그는 초기 날짜에 더 개방적입니다. 두 번째 판에서 그는 늦은 날짜와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애굽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고대 문서, 고대 자료, 고대 데이터의 뒷받침에 반하는 많은 상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잘했습니다.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썄요, 유대교를 들여다보고 유대교를 이해한다면 출애굽은 정말로 유대 민족의 중심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족과 함께 유월절이나 유월절을 기념할 때, 그것은 계속해서 기념되고, 존중되고, 기억되고, 회상됩니다. 사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의례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새겨진 기억과 기억,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 학자들은 여기에 진실의 핵심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축제를 열고 이를 둘러싼 모든 것, 이 매우 오래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었습니다. 둘째, 여기서 두 번째 요점은 한 국가, 즉 한 민족이 자신의 기원이 노예 제도에 묻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와 고대 근동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의 조상과 자매는 모두 위대한 전사, 귀족, 왕, 왕족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민족의 기원으로서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성서 기록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 출신의 이집트 체류에 대한 많은 힌트를 제공합니다.

모세(Moses), 홉니(Hophni), 비느하스(Phinehas)와 같은 이름은 분명히 이집트인이고, 비돈(Piton)과 람세스(Ramses)와 같은 출애굽기의 지명은 이집트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전에 그 중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대부분은 나중에 풀겠습니다. 파라오에 대한 것은 실제로 이집트의 신들의 판테온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차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이집트 문헌의 침묵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어떤 왕국이나 세계 제국도 그러한 당혹스럽고 파괴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단 유일신론자 파라오인 아케나텐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18왕조의 파라오입니다.

그는 태양신 아텐을 숭배하고 카르나크나 룩소르의 수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의 새로운 종교가 실제로 히브리 유일신교의 일부 측면을 적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초기 날짜라면 연대순으로 인해 우연의 일치가 눈에 띕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집트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서 피였습니다. 또 나일강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말하자면 이집트의 생명의 피는 피 그 자체가 됩니다.

이집트 기록과도 이집트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구리 떼, 다시 이집트의 신, 파리 떼, 소 떼 등. 이들 중 상당수는 야훼나 모세의 신에 대한 무력함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물론 장자의 죽음은 열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자신도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신이지만 그의 아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또는 논쟁으로서 많은 것들이 끝났습니다.

나훔 사르나는 히브리 학자였으며, 출애굽기라는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재앙 중 일부에 대해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하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에티오피아의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멀리 남쪽의 붉은 흙이 나일강의 물과 섞여서 붉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내려가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사건을 제외하면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좋아, 우리는 출애굽의 두 가지 주요 학파인 출애굽의 두 연대와 초기 연대에 대한 증거인 기원전 1445년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그것이 성경적 연대기와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체류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다시 출애굽 초기의 연대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모세 자신도 18번째 왕조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Ahmose, Thutmose 등. 거기에서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Ahmose 또는 Thutmose와 같은 파라오의 궁정에서 자란 소년에 대한 논리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19왕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출애굽 초기 파라오의 주요 후보였던 투트모세 3세는 그의 장남에게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가 10번째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연대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트모스 또는 아멘호테프 2세가 출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와 아멘호테프 2세는 둘 다 가나안과 더 북쪽으로 여러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투트모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 제국은 가장 큰 규모의 통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인간 대리인, 강력한 인간 통치자, 그의 종들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서지고 무능하다고 간주되는 이 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출애굽과 연관시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실제로 투트모세 3세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왕국의 무덤은 나일강 서편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의 미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대에는 도둑맞았지요.

모든 것이 맨손이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과 벽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거대한 지하 암석 단지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무덤이 그대로 발견된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방이었고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투탕카멘 왕의 무덤 주변에 온갖 소문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가 묻혔을 때 여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유물, 이집트 유물, 그리고 그 무덤에 담겨 있던 물건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왕조를 비교해 보면 둘 다 같은 왕조인데, 그런데 아주 아주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18왕조의 파라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트셉수트는 섭정을 역임했고 그 후 혼자서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Thutmose의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투트모스 4세와 아멘호테프 2세. 이들은 모두 출애굽의 일반적인 기간에 해당하는 바로들이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Tut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일신교 신인 아텐을 섬긴 이단 파라오, 아멘호테프, 또는 아케나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트모스 3세가 출애굽의 파라오라면 우리에게 그의 미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모세와 상호 작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기를 거부했습니까? 출애굽기의 바로였던 바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늦은 날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대략 기원전 1290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왕조인 제19왕조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요셉의 기록이 이집트의 힉소스 통치 기간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때에. 이 왕은 아모스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요셉이 고관으로 권력을 잡는 것은 이집트를 통치하는 동료 아시아인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중왕국에서 더 일찍 봉사했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11장에 언급된 두 도시인 비돔과 람세스 도시는 분명히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도시들의 19번째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들이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제18왕조에도 존재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성경 본문에서 업데이트된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에서 보여주듯이 북쪽의 멤피스에서 제19왕조의 파라오들이 통치했는데, 이는 파라오와 모세 사이의 다양한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18왕조에 이르러 멤피스까지 배를 타고 올라와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 나일강을 따라 룩소르와 카르나크까지 항해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멤피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나일강 삼각주인 고센 땅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류적으로 훨씬 더 간단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18왕조의 파라오가 고센 땅 근처에 궁전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19왕조의 맥락에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19왕조의 파라오가 나열되어 있으며, 분명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파라오는 람세스 2세일 것입니다. 자, 여기의 연대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연대기와 낮은 연대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연대가 높은 1290년 출애굽의 경우 람세스가 더 일찍 통치했을 것입니다. 90대까지 살았던 람세스 2세의 미라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의 머리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건축업자였습니다. 피라미드와 다른 것 외에 고대 이집트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기념비적 건축물은 그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기념비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매우 강력한 파라오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롭습니다. 반드시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타이 여왕의 미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녀의 머리에는 여전히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녀의 흉강은 부러져 열려 있었고 장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례를 위해 시신을 준비할 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보존 능력입니다. 이제 출애굽에 관한 모든 것, 경로, 시간, 모든 것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출애굽의 파라오가 누구인지, 출애굽의 경로는 무엇인지, 갈대바다가 정확히 어디인지, 아니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 학자들이 심포지엄과 모임을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언급하는 Yam Suph입니다. 이 모든 질문은 공개 질문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비문, 또는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동부 나일 삼각주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지도 작성과 발굴 및 측량을 통해 우선 출애굽 경로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18~19왕조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건너는 곳이 어디인지, 얄 수프(Yam Suph) 또는 갈대 바다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이름은 비돔과 람세스입니다. 이 두 도시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 꽤 확신하며,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묘사가 있습니다. 벽화입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제19왕조 세티 1세의 작품으로, 다소 비현실적인 규모를 묘사하고 있지만 아시아 원정에서 돌아온 세티와 그의 군대, 즉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물론, 세티와 그의 말과 전차가 이곳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이야기에 언급된 이집트 국경, 즉 이집트의 성벽이나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좋아요, 이집트의 그 벽이나 해안에는 악어가 있는 해자가 있고 건너야 할 일련의 요새와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가 있고, 요새가 있고, 그가 시내산을 건너는 동안 여기 저기에도 요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은 없지만 전체 캠페인 또는 반쯤 캠페인을 다룹니다. 이들은 그분 앞에서 행진하며 포로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이니라. 그리고 물론 모든 이집트 국민은 세티와 그의 군대를 승리로 환영했고, 이 승리한 원정대가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이집트인들은 베두인족, 즉 시내산에 살았던 사람들을 샤수(Shasu)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샤수는 실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경로.

보시다시피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독일 학자들은 바알 제폰(Baal Zephon) 때문에 이곳 지협으로 가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후기 페르시아 시대의 사원을 발견했고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북부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바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이집트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사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 경로에 점을 찍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 적어도 하루의 행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남쪽으로 갔거나 다른 남쪽 경로를 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많은 질문과 매우 적은 답변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시내산 전역에 건설된 이집트 요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원, 웅덩이, 샘, 또는 거기의 큰 저수지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급품과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내산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호프마이어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텔엘보르그(Tell el-Borg)라는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그의 최종 보고서 표지에는 전형적인 이집트 요새의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주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짧은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말고, 남쪽이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여행 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행진했던 지명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명들은 수세기, 아마도 수천 년 전에 잊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랍어 지명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역사가들과 학생들은 머리를 긁적입니다.

모세는 왜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함께 일할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서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파라오는 매우 강력했지만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를 만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시나이 남동쪽에는 세레비트 엘 카딤(Serebit el-Khadim)이라는 매혹적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의 채굴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연구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림 문자에서 알파벳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림 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24개의 기호나 그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아마도 진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 궁전이나 총리실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여기, 혹은 이런 곳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광범위한 그림문자 대신 단지 28~30개의 글자를 사용하는 단순화된 글쓰기, 의미보다는 소리에 기반을 둔 글자, 무언가를 묘사하는 글자가 아마도 알파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수수께끼. 그러나 그것은 힉소스 사람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간에 셈족 사람들이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글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을 단순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Erb Yitzhitzarda에서 발견된 유명한 오스트라콘입니다. 사사시대에 이곳에서 알파벳이 다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초기의 알파벳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것을 보시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나이의 광산 현장에서 발견된 아주 조잡한 상형 문자 슬래시 알파벳 쓰기에 기초한 매우 초기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 문자 A 또는 Aleph는 실제로 황소의 형상 묘사로 시작하여 양식화되고 뒤틀려져 결국 수세기에 걸쳐 우리의 문자 A가 되었습니다. 알파벳의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체류에 대한 고고학도 문제가 있다.

영국 학자 데이비스(Davies)는 『광야의 길(The Way of the Wilderness)』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이를 다루고 있다. 호프마이어는 이집트의 이스라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내산의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썼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시내산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에 짐을 풀겠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름이 잊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사이트의 묘사, 사이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면 이러한 사이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가지 추측과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종종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 남쪽 산악지대인 시나이 반도의 아름다운 사진이 있습니다. 호렙과 시내산은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된 이름이며 분명히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강의 시리즈의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내산에 가신다면,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 달에 그곳에 있었고 하이킹을 했습니다. 5시간의 하이킹이었으며 모세의 산 또는 아마도 전통적인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예벨무사 정상까지 하이킹했습니다.

나는 일출을 보았다. 그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 힘든 하이킹이었습니다. 내려가면서 나는 성 캐서린 수도원을 둘러보고 불타는 덩불이 있는 곳을 보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그 거대한 비잔틴 유적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런 곳인가요? 이곳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인가?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헬레나 여왕은 그것이 서기 4세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그녀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거기 있었나요?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시내산에는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거나 들은 대중적인 것, 언론이나 TV에서 많이 듣거나 본 것 중 하나는 시내 산이 아라비아, 특히 아라비아의 제벨 알 라즈(Jebel Al-Laz)라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이트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모세가 40세에 미디안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요르단 남부, 헤자즈(Hejaz)라고 불리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미디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고대 미디안도 시나이 반도 자체로 흘러들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호렙산을 방문하기 위해 시내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트란스요르단의 이 지역으로 가는 순례길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정이 있다. 프랭크 무어 크로스(Frank Moore Cross)는 이에 대해 언급했고, 프랭크 무어 크로스(Frank Moore Cross)는 이러한 추측적 견해의 긍정적인 측면 중 일부를 인식했습니다. 괜찮은.

이 사이트를 둘러싼 실제 논쟁은 일종의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출애굽의 금(Gold of the Exodus)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아시다시피 시나이와 시나이 주변의 많은 기념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산 정상까지 불타오르는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국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시내산이나 아라비아로 넘어가는 데는 3일이 결코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참호인 아카바 만, 즉 여기 에일랏 만을 건너는 것입니다.

물이 빠져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등산장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쪽으로 갔다면 아마도 만의 북쪽 가장자리를 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섬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흥미로운 이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제벨 무사와 성 캐서린 수도원의 사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물론 고대에는 이것이 황량한 서부였습니다. 이 주변에는 문명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매우 황량합니다.

그러나 성 캐서린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성이었고, 말하자면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없었습니다.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바구니에서 낮추고 올라야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바뀌었지만 방문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기 제벨 무사(Jebel Musa) 꼭대기에 있는 예배당 꼭대기에서 바라본 시나이 남부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율법이 주어진 후,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여행하시고 거하실 장소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는 성막 울타리와 천막이 제19왕조의 이집트 왕실 천막, 특히 람세스 2세가 시리아의 가데스에서 히타이트와 싸웠을 때의 천막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바로진영은 멀리서 보면 평면도나 모습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은 아래 모압 평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이집트 왕실의 야영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람세스 2세의 진영과 성막이 있는데, 기본 배치가 매우 유사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제단. 이것은 페트라에의 높은 곳이고 훨씬 나중에는 아비티아누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기 청동기 시대 수준인 므깃도(Megiddo)의 초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밖에 있던 제단은 그것의 변형이며 아마도 그 두 가지의 특징 중 일부를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적 확실한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머무르면서 진을 쳤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곳에 샘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Ein Kadesh 또는 아랍어로 Ein Kedes가 그 이름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출애굽 당시의 미디안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제 현장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집트 국경 바로 안쪽, 시나이 국경, 이스라엘 국경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철기 시대 요새, 아마도 일련의 요새, 아마도 단지 두 개만 이스라엘이 시나이를 점령했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발굴되었습니다. Rudolf Cohen이 출판하고 작성했습니다. 모세 도탄(Moshe Dotan)은 이스라엘이 1956년 시내산을 점령하는 동안 이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동안 중요한 여행 장소로 여기에 매우 명확한 후보가 하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Kadesh Barnea입니다. 그건 그렇고, TE Lawrence가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요새의 모형이나 상위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호르산은 또 머무는 동안 아론이 세상을 떠났고, 저기 위에 있는 작은 구조물인 저 작은 흰색 둥근 지붕이 호르산의 꼭대기, 즉 그가 묻힌 정상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또한 늦은 전통입니다. 비잔틴이고 제벨 무사와 똑같습니다. 이곳이 아론이 묻힌 호르산이냐?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체류가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과 모압 왕들이 식량과 물이 더 많은 쉬운 길인 왕의 큰 길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헤스본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은 성서에

나오는 히스반의 정점으로, 오늘날의 모습처럼 히스반의 침입을 막거나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싸우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하스에서 전쟁을 벌였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군대를 쳐부수고 헤스본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앤드류스 대학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까지 수년에 걸쳐 헤스본 유적지를 발굴하고 여러 시즌 동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여기서 많은 개인적인 연결이 됩니다. 나는 현장에서 봉사하고 학생과 직원으로 일했지만 모세 시대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드릴 매우 큰 17 x 17 미터 수영장을 포함하여 중세 시대, 신약 시대, 심지어 구약 시대의 놀라운 유적과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부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고고학의 한계를 보여준다. 때때로 고고학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일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헤스본에는 21개의 인식된 지층 또는 층, 직업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직업은 대략 13세기 후반의 것입니다.

매우 초기 철기시대 1 또는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 1 전환. 이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이 사이트는 매우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세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암몬 산지, 동쪽과 남쪽으로는 미쇼르, 서쪽으로는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요르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수목원입니다. 헤스본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주변 시골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권력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오늘의 헤스본 모습입니다. 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언덕 꼭대기입니다. 지층은 매우 촘촘하고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출애굽 당시 그곳에 직업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많은 고고학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 시혼에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정착지까지 헤스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8세기와 6세기에는 그 지역에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아마도 잠시 동안은 유다 출신의 유다 족속이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헤스본의 실제 노래입니다. 헤스본은 성경에 거의 40번 언급됩니다.

헤스본의 멸망과 시혼의 패배도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한 깊은 기억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어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여기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시혼과 아모리 족속이 비교적 최근에 그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인(Amorite)이라는 이름은 서양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이름,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고 아르논 강까지 자기들의 땅을 개척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 그 왕국이 반드시 그들이 궁전과 사원, 벽돌집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그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헤스본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의 발견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이 파괴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천막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추측이지만 아마도 해당 구절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헤스본은 나중에 솔로몬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스본에서 발견한 헤더와 들것인 Ashlar Masonry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행정 구역 목록에 따라 헤스본을 그의 구역 중 하나의 수도 또는 구역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헤스본에 문제를 안겨줍니다.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현장을 조감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발굴 작업을 했던 바로 그 수영장, 17미터 길이의 바위로 기반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헤스본은 아마도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왕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아가서)의 구절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솔라미 소녀의 눈이 헤스본 못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스본 꼭대기 근처에서 크고 기념비적인 못, 즉 거대한 못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중 형태였으므로 아마도 이중 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곳에 거대한 웅덩이가 존재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했던 모압 왕 발락이 이곳에서 다스렸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곳은 십자군 성, 알카락(Al-Karak)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기만적입니다.

그러나 그 성 아래에는 불행하게도 라틴 왕국이 건설하면서 완전히 없어진 모압의 수도 키르 하레셋 또는 키르 하헤레스가 있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발락은 왕정시대까지 쭉. 알카락(Al-Karak)은 사해로 바로 내려가 성서의 소돔 유적지로 나오는 와디 알카락(Wadi Al-Karak)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견자 발람이 있는데, 민수기 22-24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일종의 무당, 즉 영적인 사람을 고용하여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압은 고원 위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위의 고원이나 성서의 미쇼르, 고원, 카라크 고원, 다반 고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래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이라는 무당이나 선견자를 고용하여 와서 사람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람이 전한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압 왕을 극도로 화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이야기이고, 민수기에 있어서 훌륭한 설명입니다. 이제 1967년에 네덜란드 고고학자 헨크 프랑켄(Henk Franken)이 모압 북쪽 요르단 계곡에 있는 탈 데이르 알 알라(Tal Deir al-Ala)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비문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도시의 사원이나 사당에서 글이 쓰여 있는 회벽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진 회반죽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여기에 이 글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까지의 매우 초기 암문인 슬래시 아람어 글입니다.

성서는 선견자 발람을 존경받는 인물로 언급합니다. 모세와는 매우 동시대적이지만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발람이 묘사되는 방식에 따르면 그는 역사상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놀라운 발견이 발람이 역사적 인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하거나 거의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스모킹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은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oudon 박사입니다. 세션 12, 출애굽과 광야의 고고학입니다.